



코로나 시대, 치유와 회복의 길

정찬승

Regular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nalytical Psychology (IAAP)

Regular member, Korean Association of Jungian Analysts (KAJA)

General secretary, East Asian Academy of Cultural Psychiatry (EAACP)

Chairman of public relations, Korean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KSTSS)

I. 판데믹 시대의 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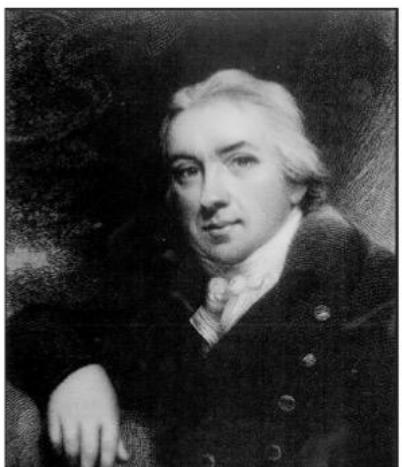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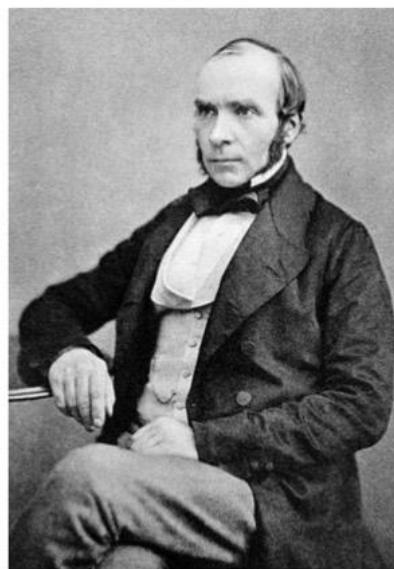
Dream

“욕실의 욕조 안에 앉아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쏟아지는 물줄기가 무척 따뜻하고 편안했죠. 그때... 음... 이런 얘기는 무척 당황스럽지만... 내가 갑자기 대변을 보는 거에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계속 나왔어요. 욕조 안은 대변이 가득 떠다녔고 나는 대변을 모두 변기에 버리고 몸과 욕조를 다 씻고 나서야 목욕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 무척 가볍고 개운한 기분이었어요.”

II. 감염병 대처의 역사



Edward Jenner



John Snow



Louis Pasteur



Alexander Fleming

III. 원망과 분노





A photograph of a man with glasses and a beard, wearing a dark suit and tie, standing behind a wooden podium and speaking into a microphone. He is looking slightly to his right.

VI. 유언비어

Infodemic = information + epidemic





Dream

버스를 타고 가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모래와 연기로 만들어진 커다란 공룡이 나타났어요. 공룡의 등장에 그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패닉에 빠졌죠. 하지만 버스 안에 있던 아이들은 그것이 진짜 공룡이 아니란 걸 알기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공룡이 우리가 탄 버스를 향해 쿵쾅거리며 달려올 때는 나도 잠깐 위축됐어요. 그렇지만, 한 아이가 ‘저거 이제 인형으로 변한다.’고 해서 계속 공룡을 지켜봤더니 공룡이 우리가 탄 버스에 부딪히는 순간 연기가 되어 흩어지고 커다란 인형이 그 자리에 남았어요. 알고 보니 그 공룡을 만든 건 우리 버스 앞에서 있던 약간 뚱뚱해 보이는 삐에로 아저씨였죠. 후줄근한 런닝 바람에 지저분한 모습의 삐에로였어요.

나는 어느 새 기숙사에 도착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모래연기 공룡의 이야기를 우스꽝스럽게 들려주었어요. 말하는 나도 듣는 아이들도 하나같이 그 이야기에 배를 잡고 웃어댔죠. 정말 즐거웠어요.



V. 처용무





처용가

동경 밝은 달에 밤들어 노니다가,
집에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러라.
둘은 내 것이고 둘은 뉘 것인고.
본디는 내 것이다 마는 앗은 것을 어찌할꼬.

東京明期月良夜入伊遊行如可入良沙寢矣見昆脚烏伊四是
良羅二肸隱吾下於叱古二肸隱誰支下焉古本矣吾下是如馬
於隱奪叱良乙何如爲理古



Dream

꿈속의 나는 코메디언이었어요. 나는 정말 많은 조크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내 조크들을 대형 마트에서 제품처럼 판매하게 됐어요. 통조림에 조크를 담아서 말이에요. 나는 아주 유명해졌어요. 할리우드의 유명한 여자 코미디언이 내 조크 판매 사업 시작을 축하해 주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기발한 조크를 하는 코미디언이라서 나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형 마트 사장이 갑자기 내 조크 제품들을 검열했어요. 그리고 사장은 내 조크를 팔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냥 평범하고 지루한 보통 식료품들만 팔았어요. 나는 무척 실망하고 화가 났어요.

VI. 균형



외면적 대처와 내면적 대처의 균형

세균과 인간의 균형

집단과 개인의 균형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



VII. 재난의 의미

재난은 고대로부터 인간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야기
인간의 최선을 다한 대처
재난과 대처가 인간 심성에 남긴 깊은 영향
재난의 상징적 의미



Dream

홍수가 났다. 엄청난 흙탕물 속에서 돼지가 떠내려 가고, 모든 것이 진흙이었다. 거무튀튀한 갈색과 초록빛이 섞여 있는 흙탕물 속에서 커다란 식빵이 떠내려왔다. 나는 여기서 죽으나 저기 떠내려오는 식빵을 타고 죽으나 같을 것 같아서 식빵을 타기로 했다. 식빵은 사람들이 올라갈 정도로 거대한 크기였다.

식빵을 타고 보니 그 위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 나와 다른 두 사람 정도가 식빵을 탔다. 빨리 목적지로 가야하는데, 흙탕물에 식빵이 점점 젖어갔다. 나는 식빵 끝에 매달려서 “움직이지 마! 안 돼! 식빵이 젖으면 가라앉아!”라고 다급하게 외쳤다.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서서 식빵을 이끌며 방향을 조절했다. 예수님의 흰 옷에는 진흙이 하나도 묻지 않았다.



재난의 목적의미

파괴와 창조
경신(更新)



Paths to Healing in the COVID-19 Era

Chan-Seung Chung

Regular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nalytical Psychology (IAAP)

Regular member, Korean Association of Jungian Analysts (KAJA)

General secretary, East Asian Academy of Cultural Psychiatry (EAACP)

Chairman of public relations, Korean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KSTSS)